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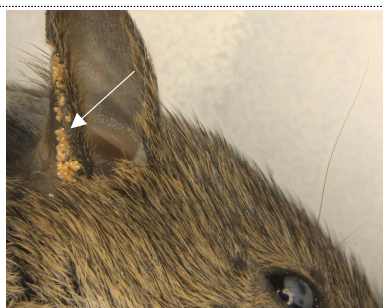
가을의 숨은 위협, 털진드기 활동 급증 야외활동 시 주의 필요

-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전국적 발생 밀도 조사 결과, 전주(42주차) 대비 12배 발생 증가
-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 대비 야외 활동시 긴 옷 착용 및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 준수 권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월 31일(43주차)에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지수*가 0.24로 전주(0.02) 대비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털진드기 지수: 털진드기 채집 개체수를 사용한 트랩 수로 나눈 값

털진드기 발생 감시는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10~11월)에 대비하여 매년 조사 중에 있으며, 올해는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강원,전남,전북),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센터(8개)가 협력하여 8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16주간) 매주 전국 19개 지점(붙임1 참고)에서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설치류 체액을 흡혈하는
털진드기 유충



털진드기 유충
실체현미경 사진



활순털진드기
형광현미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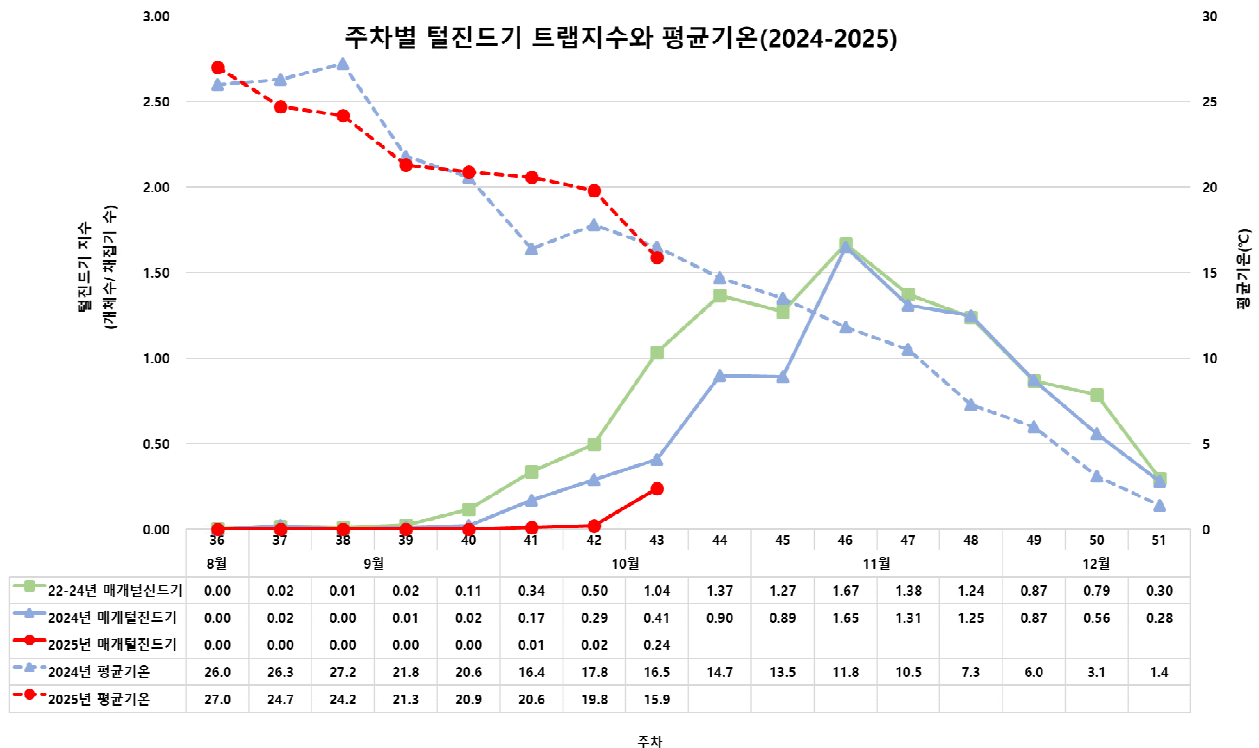
쭈쭈가무시증은 쭈쭈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되며,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증상은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며, 최근 3년('22~'24년)간 전체 환자의 73.2%가 가을철(10~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 2024년 9월부터 가피 형성 확인 추가 등 진단 신고 기준이 변경됨

국내 쭈쭈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이 보고되어 있으며, 2024년도 감시 결과, 남부 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 중부 및 북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붙임 2 참고).

* 활순털진드기, 대잎털진드기, 수염털진드기, 동양털진드기, 반도털진드기, 사육털진드기, 조선방망이털진드기, 들꿩털진드기

또한 털진드기는 평균기온 20℃ 미만에서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0~15℃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다가, 10℃ 미만으로 떨어질 때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붙임2 참고). 2025년 43주차에 평균기온 15.9℃로 떨어짐으로써 털진드기의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가을 단풍철 및 추수기를 맞아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찻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찻잔가무시증은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야외활동이나 농작업 후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거나, 10일 이내(잠복기)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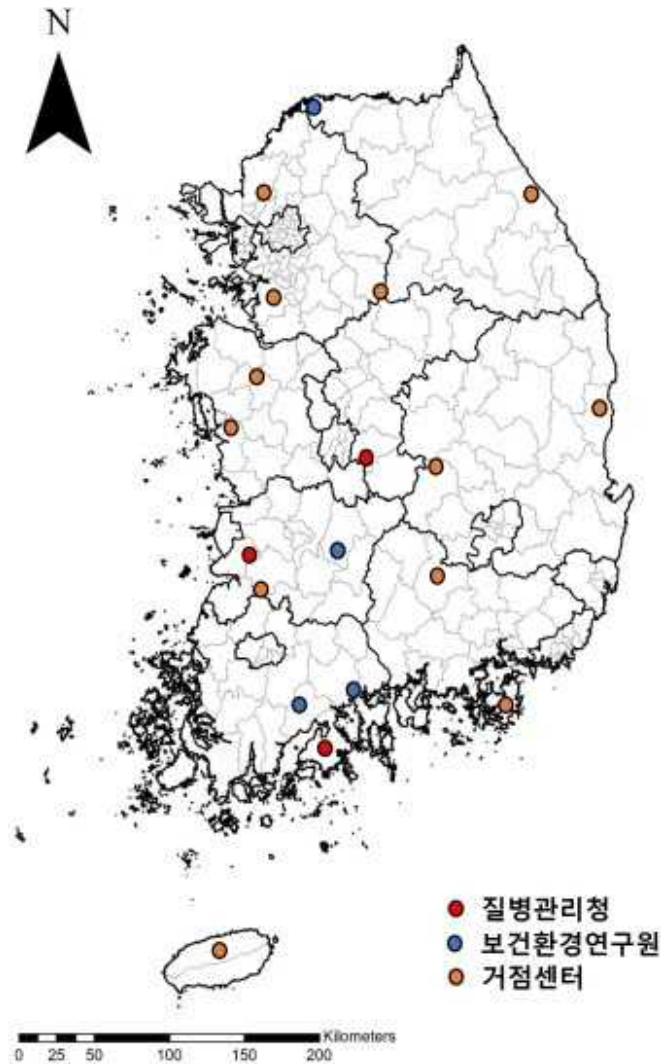
- ①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않기
 -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않기
- ② 야외활동 시 긴 옷, 목이 긴 양말, 장갑, 모자 등 착용하기
 -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 ③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고 진드기 확인하기
 - 목욕 또는 샤워하면서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관찰하기
 -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확인하기
 - * 털진드기 유충의 크기는 0.3mm이하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움
 -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 <붙임> 1. 2025년 찻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
 2. 2024년 찻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결과
 3. 찻잔가무시증 관련 질의응답(Q&A)

담당 부서 <총괄>	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희일	(043-719-8560)
		담당자	연구관	주정원	(043-719-8521)
담당 부서 <협조>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종희	(043-719-7160)
		담당자	연구관	권정란	(043-719-7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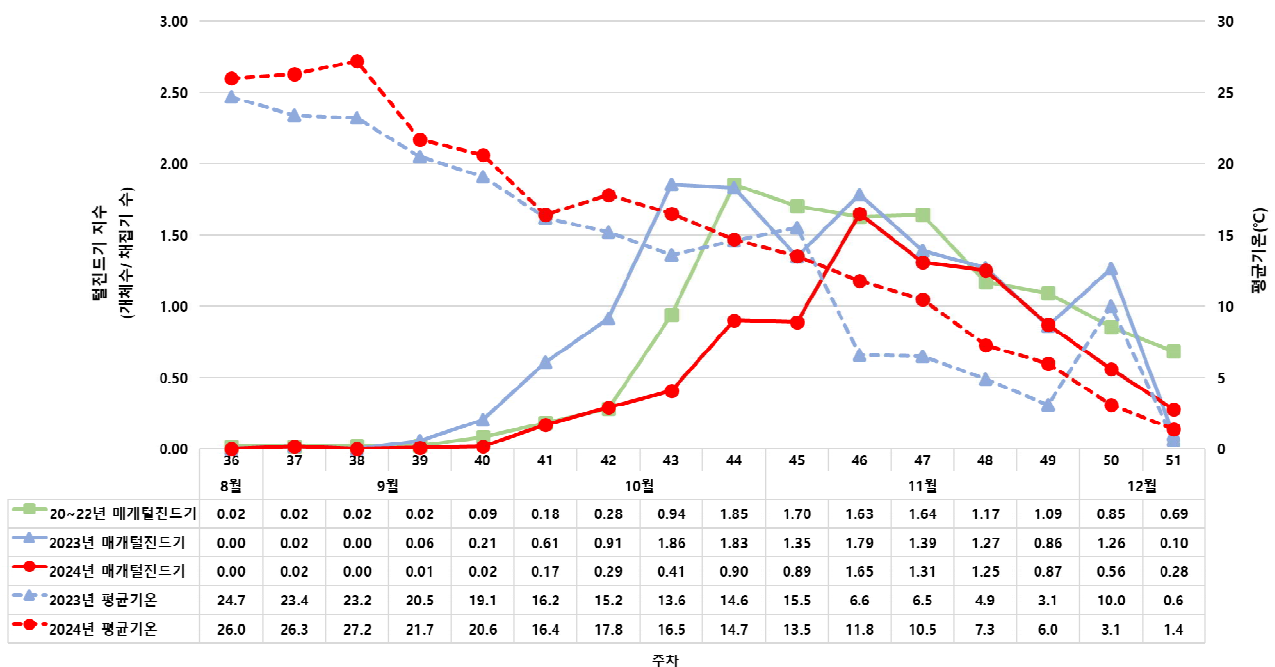
기관명	세부 기관명	감시지역	기관명	세부기관명	감시지역
질병관리청	본청	옥천군	거점센터	연세대학교	강릉시
	호남권	부안군		충남대학교	보령시
	질병대응센터	고흥군		순천향대학교	예산군
보건 환경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전남대학교	정읍시
	전라남도	보성군			거제시
		순천시			합천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경북대학교	김천시
거점센터	인천대학교	화성시		제주대학교	영덕군
	삼육대학교	파주시			제주시
		여주시			



<참여기관 및 감시지점>

○ 주차별 털진드기 지수와 평균기온

- 털진드기의 주요 활동 시기(9~12월) 동안 털진드기 발생을 감시한 결과, 10월 초중순(40~42주차)부터 발생이 완만하게 증가하여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43~46주차)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털진드기 발생은 평균기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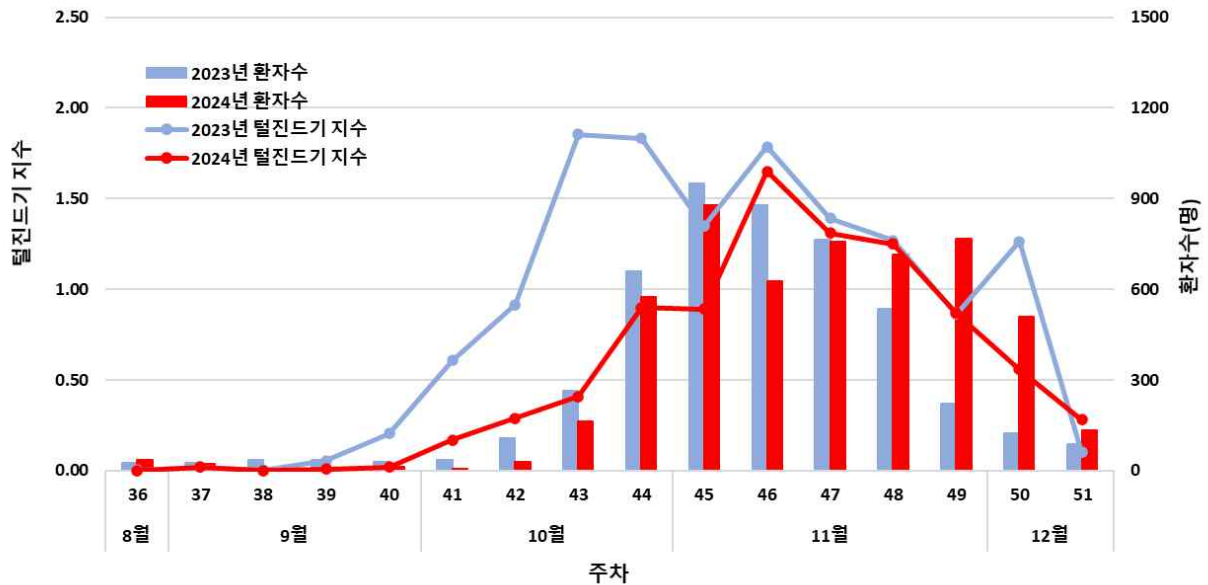
<주차별 털진드기 지수*와 평균기온(2023~2024년)>

*털진드기 지수(Trap Index) = 트랩당 7일간 채집된 털진드기 개체수(개체수/트랩수)

- 일반적으로 36주차에서 40주차까지 온도가 약 20°C 이상일 때는 털진드기 개체수는 증가하지 않음
- 이후 온도가 약 20°C 미만일 때 개체수는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며 약 15°C를 시작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임
- 이후 약 10°C 미만으로 평균기온이 감소하면서 개체수 또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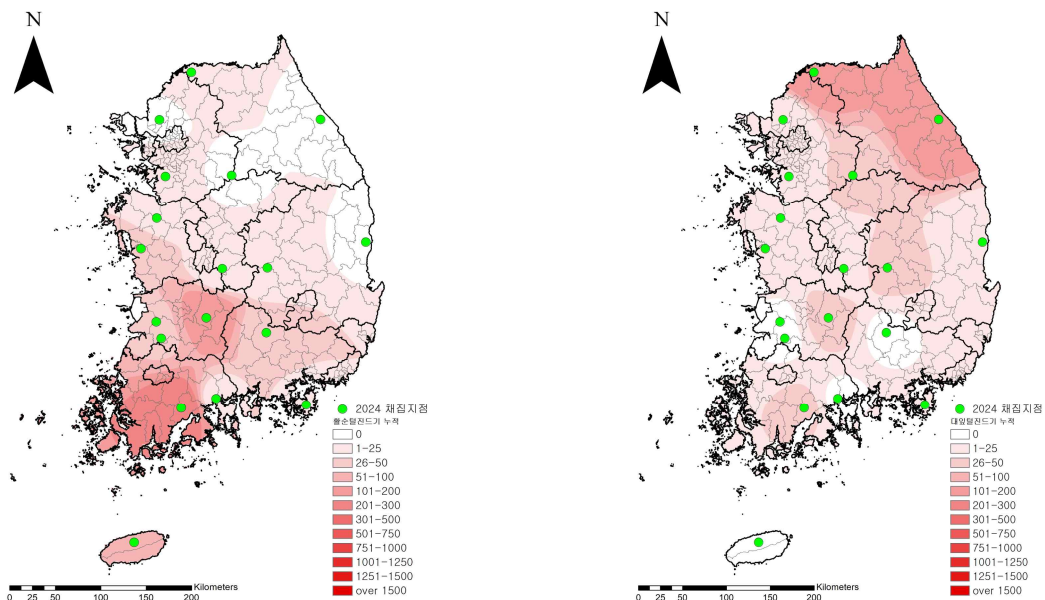
○ 털진드기 지수와 쯤쯤가무시증 환자수

- 2023년에는 40~42주차에 털진드기 발생량 증가 후 43~45주차에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40~43주차에 털진드기 발생 증가 후 43~45주차에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털진드기 발생 증가 시기와 쯤쯤가무시증 환자 증가 시기는 쯤쯤가무시증 잠복기(1~3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털진드기 지수와 쯤쯤가무시증 환자수(2023~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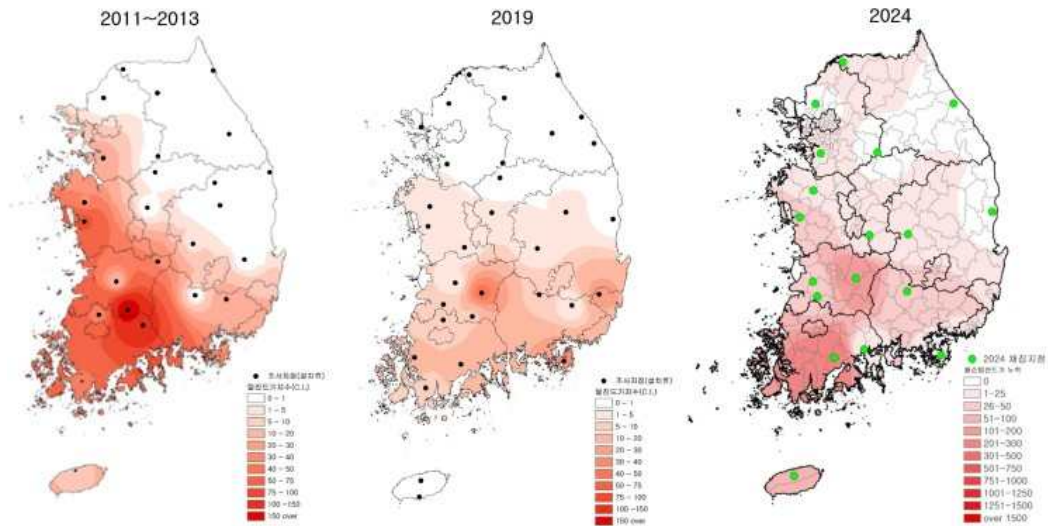
○ 쯤쯤가무시증 주요 매개 털진드기 지역적 발생 현황



<24년 활순털진드기 발생 분포>

<24년 대잎털진드기 발생 분포>

- 찻잎가무시증의 주요 매개종인 활순털진드기의 분포지역 확대
 -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던 활순털진드기가 점차 북상하는 경향



<국내 찻잎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활순털진드기의 분포지역>

Q1. 프프가무시증의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 농작업·야외활동 시 적정 작업복(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착용, 농경지 및 거주지 주변 풀 제거, 풀숲에 옷을 벗어 놓지 않고 휴식 시 돛자리 사용, 농작업·야외활동 후 작업복 세탁하기, 귀가 즉시 목욕·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2. 프프가무시증 증상과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 프프가무시증은 보통 10일 이내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으로 발생하며, 두통, 발열, 오한, 구토, 발진, 근육통, 기침 등이 나타나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됩니다.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비교적 용이하게 회복되지만, 단순 감기몸살로 착각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Q3. 프프가무시증은 왜 가을에 많이 발생하나요?

- 프프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발생합니다.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에 산란한 털진드기 알이 초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부화할 때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털진드기 유충이 활동하는 시기인 가을(9~11월)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 프프가무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Q4. 모든 털진드기가 프프가무시증을 일으키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진드기는 세계적으로 4~5만종이 확인되어 있으나, 그 중 털진드기과에 속하는 진드기류만 프프가무시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털진드기과는 60종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프프가무시균 매개종은 대요털진드기, 활순털진드기, 수염털진드기, 동양털진드기, 반도털진드기, 사육털진드기, 조선방망이털진드기, 들꿩털진드기 등 8종입니다. 이중에서도 프프가무시균에 감염된 진드기 유충만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대표적인 종은 활순털진드기와 대요털진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